

「佛氏雜辯」 초간본의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First Edition of the *Bulsijabbyoun*

吳 龍 燮(Oh, Yong-Seob)**

◁ 목 차 ▷

- | | |
|-----------|-------------------|
| 1. 서 언 | 5. 초간단행본과 합편본의 대비 |
| 2. 저술의 배경 | 6. 결 언 |
| 3. 완성과 간행 | <참고문헌> |
| 4. 삼봉집 합편 | |

<초 록>

불씨잡변은 정도전의 최후 저술로 1398년에 완성되었다. 저술 동기는 성리학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불교계를 혁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자는 이 책을 완성한 지 수 개월 만에 반역죄로 죽게 되자 원고는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윤기견은 세종 20(1438)년 한학에게서 원고를 입수하여 세조 2(1456)년에 처음으로 양양에서 간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불씨잡변의 초간본이다. 이 초간단행본은 현재 미국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 동아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책을 통해 여러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서명 중의 변(辨)은 맹자의 호변(好辯)의 변(辯)을 따른 것이므로 변(辯)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서명은 초간단행본과 같이 불씨잡변(佛氏雜辯)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둘째, 윤기견과 조력자의 관직명을 볼 때 간행지 양양은 예천의 별명이었다. 셋째, 이 책의 책판은 임진왜란 때 왜군의 침략 때 소실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이 책은 세조 11(1465)년에 간행된 삼봉선생집에는 권7, 정조 15(1791)년에 간행된 삼봉집에는 권9, 또 다른 번각본에는 권5에 편성되어 혼란스럽다. 다섯째, 세조 11년에 간행된 삼봉선생집에 합편된 불씨잡변보다 정조15년 삼봉집에 합편된 불씨잡변이 교감이 더 정밀하였다.

要語 : 불씨잡변, 삼봉선생불씨잡변, 윤기견, 호변, 예천, 삼봉집, 삼봉선생집.

* 본 연구는 인천전문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仁川專門大學 文獻情報科 教授(woojook@icc.ac.kr)

접수일: 2006년 5월 15일 최초심사일: 2006년 5월 17일 심사완료일: 2006년 6월 16일

<ABSTRACT>

The *Bulsijabbyon*(佛氏雜辯) was written by Jeong Dojeon(鄭道傳) in 1398. The purpose of his writing was to emphasize the superiority of Sung Confucianism to repress Buddhism. Since he was executed for treason only after a few months of its completion, the manuscript disappeared. In 1458, Yoon Gigyoun(尹起畎) who obtained the manuscript from Hanhyouk(韓弈) in 1456, published the first edition of the *Bulsijabbyoun* in Yangyang. This first edition of the *Bulsijabbyoun*(佛氏雜辯) is currently held at the East Asian Library of U.C. Berkeley. The examination of this copy brought up several new facts as follows:

First, 'Byoun(辨)' of the title was derived from 'Hobyoun(好辯)' of Mencius doctrines. Therefore the title must be the *Bulsijabbyoun*(佛氏雜辯). Second, it is assumed that Yangyang must be another name for Yecheon(醴泉), when the official posts held by Yoon Gigyoun(尹起畎) and his assistant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hird, its printing blocks must have been burn down by Japanese soldiers during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3. Fourth, the *Bulsijabbyoun*(佛氏雜辯) was included in various chapters of different editions of Sambongjib(三峯集), so that there has been much confusion. Fifth, the *Bulsijabbyoun* included in the *Sambongjib*(三峯集) (1791), was more precisely proofread than the same text included in the *Sambongseonsaengjib*(三峯先生集) (1465).

Key words : *Bulsijabbyoun*, *Sambongseonsaeng Bulsijabbyoun*, Yoon Gigyoun, Hobyoun, Yecheon, *Sambongjib*, *Sambongseonsaengjib*.

1. 서 언

삼봉 정도전(?-1398)은 조선의 건국과정에서 정치 철학사상을 정립함으로써 조선왕조 오백년 동안 줄곧 그의 정신이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당시 국가를 경영하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 곧 정치경제와 군사 국방은 물론 철학 사상에 이르기까지 각기 엮은 그의 저술은 지금 삼봉집에 합편되어 전한다. 그 중에서 불씨잡변은 1398년에 완성한 그의 최후 저술인데 心氣理三篇, 心問, 天答 등과 함께 성리학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불교계를 혁파하기 위한 명분으로 저술한 것이다.

그의 저술 중에서 시문들은 그가 생존해 있을 때 아들 鄭津에 의해 삼봉집이라는 서명으로 간행되었고, 다른 저술들은 단독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불씨잡변은 완성한 지 수 개월 만에 저자가 죽게 되자 원고조차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침 연산군의 외조부 되는 윤기견이 양양의 수령으로 있을 때인 세조 2(1456)년 5월에 그 전에 입수해놓은 원고를 간행함으로써 이 책의 내용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불씨잡변의 초간본이다. 이후 불씨잡변은 세조 11(1465)년에는 삼봉선생집, 정조 15(1791)년에는 삼봉집에 합편되어 간행되었으므로 단행본으로서의 간행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셈이다.

후일 삼봉선생집 또는 삼봉집에 합편된 불씨잡변은 권근의 서문과 윤기견의 발문까지 망라되어 있으므로 초간의 불씨잡변 역시 이와 동일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초간단행본은 지금껏 실물이 공개되지 않아 더 이상의 조사나 연구는 진척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 동아도서관¹⁾에는 이 초간단행본이 소장되어 있다.²⁾ 이 초간단행본을 통해 불씨잡변이 실제로 간행된 사실을 확인할

1)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2) 三峯先生佛氏雜辯 / 鄭道傳(?-1398) 著. - 木板本. - [醴泉]: [尹起猷], 世祖 2(1456)刊, [15-16世紀後刷]

不分卷1冊(35張): 四周雙邊 半郭 26.7 × 17.1 cm, 有界, 10行 18字, 註雙行, 大黑口, 內向黑魚尾; 34.1 × 21.9 cm

수 있을 뿐 아니라 후대 삼봉선생집 또는 삼봉집에 합편된 불씨잡변이 과연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초간단행본을 살펴 간행 사실을 확인하고, 후대 합편된 불씨잡변과의 내용대비를 통해 초간단행본의 우월성도 밝히고자 한다.

2. 저술의 배경

조선이 개국되기 전까지 정도전은 시대적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불교에 대한 반감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탓인지 禪僧들과 교류³⁾도 제법 있었다. 나아가 승려들은 가정과 세상을 떠나 君師父를 버리지만 인심이란 모두 같아 서로 감응한다⁴⁾며 불교에 대해 비판적인 관용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성리학을 이념으로 한 조선이 건국되자 그의 이러한 입장은 완전히 바뀌어 佛舍利에 대해서도 “모두 물이나 불 속에 던져 영원토록 근본을 끊어야 하거늘 하물며 다시 공경히 받들며 귀의 하려는가”⁵⁾라며 극도의 반감을 드러낸다.

사실 역성혁명의 주역인 그에게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⁶⁾ 그 중에서도

序: 洪武三十一年後五月既望陽村權近序

跋: 景泰七年(世祖2,1456) 午月仲旬金羅尹起猷敬跋

監刻: 奉列大夫行知禮泉郡事…尹起猷

通仕郎醴泉儒學教導李煥

備考: 第29-30張 落張.

- 3) 訪定林寺明上人(『三峯集』,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5.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0). 306上), 寄贈柏庭禪(306下), 贈柏庭遊方(306下), 訪古軒和尚途中(307上), 送等庵上人歸斷俗(307上), 題僧牧庵卷中(309上), 寄斷俗文長老(312下), 信長老以古印社主命來惠白紵臨別贈詩(313上), 送覺峯上人(313上), 送湖長老詩序(334下), 贈祖明上人詩序(335上), 送華嚴宗師友雲詩序(342上).

- 4) 鄭道傳. 『三峯集』卷3. 贈祖明上人詩序(335上).

- 5) 鄭道傳. “佛氏雜辯識”. “彼舍利者…學以投諸水火, 永絕根本, 況復敬奉, 而歸依歟”.

- 6) 정도전의 인물 및 정치 철학사상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앞선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李相佰, “三峰人物考1,” 『震檀學報』第23卷(1935). 239-283.

李相佰, “三峰人物考(完),” 『震檀學報』第23卷(1936). 495-529.

李丙燾, “三峯의 儒佛觀,” “三峯의 與關異端,” 『三峯鄭道傳研究』, (서울 삼봉선생기념사

새로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령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였다. 또 국가의 통치이념인 성리학에 반대되는 불교에 대해 비판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심기리, 심문, 천답 등에 이어 불씨잡변까지 저술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불교비판은 한 개인이 평생토록 불교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아니라 성리학자의 기존 주장을 수용하면서, 당시 화려하고 부패한 려말 불교의 사회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의 불교비판에 대해 평가자들은 다소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곧 성리학의 입장에서 불교를 이렇듯 철저히 비판한 것은 동아시아 세계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것으로 사상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⁷⁾이라거나 그의 개혁사상과 배불론이 일으킨 사회적 작용은 중국의 王安石의 變法에 비해 한걸음 나아간 것⁸⁾이라며 일방적인 극찬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배불론이 지니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는 공리주의를 변칙하여 의리주의를 관철시키려는 뚜렷한 이념성을 지닌다⁹⁾는데 있었다. 더욱이 그의 배불론은 이후 더 이상의 논쟁을 가져오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곧 이념성을 가진데다 추후 사상이나 철학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의 논쟁이 되지 못한 것은 분명 그의 불교비판은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또 그의 척불론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것으로 이론적 척불론은 그가 효시가 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아울러 비판적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곧 종교를 이론적으로 논변하는 것이 무리인데다 불교를 치기 위해 고의로 비난한 점, 또 그의 이론이 독창적이지 않음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¹⁰⁾

이렇게 그의 배불론은 극찬과 한계라는 양면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단순히 불교의 사회적 폐단뿐 아니라 불교교리에 대한 철학적 비판을 제기하여 조선왕조의 유교적 통치이념을 정립하는데 기여¹¹⁾한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결국 불씨

업회, 1982).

琴章泰, “三峯의 關佛論,” 『三峯鄭道傳研究』 (서울: 삼봉선생기념사업회, 1992). 185-214.

7)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개정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47.

8) 이홍순, “정도전의 배불사상,” 『애산학보』 12집(1992). 140.

9) 金海榮, “鄭道傳의 排佛思想,” 『淸溪史學』 제 1집(1984). 61-62.

10) 宋昌漢, “鄭道傳의 斥佛論에 대하여: 佛氏雜辯을 중심으로,” 『大丘史學』 15-16合集(1978). 246.

잡변도 신왕조에 적합한 통치이념을 위해 기존의 심기리 등을 보완하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완성한 저술인 셈이다.

3. 완성과 간행

정도전은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진법 등을 지어 신왕조를 유지할 정치경제 군사국방 등의 해법을 제시한 데 이어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여 새로운 통치이념을 보완하고자 태조 7(1398)년 여름에 약간의 휴가기간 동안 이 책을 완성한 것이다. 그는 정치사상적인 능력은 탁월하였지만 처신이 가볍고 포용력 또한 부족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다가 이 책을 저술한 지 수개월이 지나서는 이방원 무리에게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만다.¹²⁾ 그러자 이 책의 원고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후일 연산군의 외조부이자 폐비윤씨의 아버지 되는 尹起畎가 성균관 동료인 韓奕으로부터 이 원고를 입수하게 된다.¹³⁾ 곧 1398년 완성되어 권근의 서문까지 첨부된 이 원고는 세종 20(1438)년 정도전의 族孫인 한혁이 동년 성균생원인 윤기견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었다. 원고를 본 윤기견은 변론이 자세하고 허탄한 것을 배척하였기에 애독하며 보배로 간직하다가¹⁴⁾ 세조 2(1456)년에 간행하게 된다. 윤기견이 이 책의 원고를 본 뒤 18년이 지난 일이었다. 이것이 불씨잡변 초간단행본으로 저술된 지 58년이 지나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이다. 당시 한혁이 이 원고를 소장한 경위는 그가 정도전의 족손이라는 인척관계 이외는 다른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다. 아마 정도전이 죽은 후 이

11) 이영춘, “정도전의 배불론과 그 성격,” 『한국사상과 문화』 창간호(1998), 167-185.

12) 『朝鮮王朝實錄』太祖7年 8月 26日 己巳(條), “奉化伯鄭道傳, 宜城君南闔, 及富城君沈孝生等, 謀害諸王子, 不克伏誅”.

13) 尹起畎, “佛氏雜辯跋,” “歲戊午, 予以生員在成均館, 吾同年韓奕, 先生之族孫也. 得此書於家藏亂帙之中, 持以示予”.

14) 尹起畎, “佛氏雜辯跋,” “觀其文辭豪逸, 辨論纖悉, 發揮性情, 擯斥虛誕, 眞聖門之藩籬, 而六經之羽翼也, 予愛而寶之, 藏之久矣”.

원고가 인척관계인 한혁의 집안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윤기전이 한확으로부터 이 책을 입수한 사실을 근거로 “불씨잡변이 편찬된 이후 바로 성균관 유생들에게 배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¹⁵⁾하기도 한다. 이 짐작은 한혁이 정도전의 족손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당시 성균관 유생들이 두루 이 책을 가지고 있었다면 윤기전과 다른 생원들도 이미 불씨잡변 원고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윤기전이 한혁을 통해 이 원고를 입수할 때 그렇게 감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3.1 내용과 체제

불씨잡변 초간단행본은 일반적인 구성 차례를 따라 序, 본문, 저자의 識¹⁶⁾ 그리고 跋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는 본문이 끝난 뒤 지, 서, 발이 차례로 있는 후대의 합편본과는 체제가 다르다. 서문은 權近이 지었는데 저자와의 친분은 師友¹⁷⁾라는 그의 표현대로 각별한 것이었다. 그런 탓인지 비교적 초기 작품인 경제문감과 조선경국전의 서문을 鄭摠이 지은 것 외에는 대부분 권근이 지었다. 곧 초간의 삼봉집 서문은 물론 불씨잡변, 심기리편, 심문, 천답, 경제문감별집 등의 서문 그리고 여러 작품¹⁸⁾이 있다.

불씨잡변¹⁹⁾은 이전에 지은 경제문감²⁰⁾과 마찬가지로 한가한 날에 지은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한가함은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를 말한 것이다. 불씨잡변 권말에 있는 정도전의 지에는 “여가를 내어 불씨잡변 15편과 전대사실 4편을 지었다”²¹⁾고 한 것과 같이 이 책은 불씨잡변뿐 아니라 전대사실까지 포함하여 19편으

15) 한영우,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서울: 지식산업사, 1999). 135.

16) 정도전은 저작의 권두나 말미에 그 저작을 저술하게 된 동기와 연유 또는 내용 등을 설명하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는데 이 책에는 권말에 있다.

17) 權近, “題國初群英眞蹟”. “師友三峯數十年 …”.

18) 權近, “監司要略跋.” 「經濟文鑑」(『국역양촌집』:고전국역총서175.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2). 169-170, [原文p.61].

19) 鄭道傳, “佛氏雜辯識.” “道傳暇日, 著佛氏雜辯.”

20) 權近, 「經濟文鑑」. “道傳嘗以暇日”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문을 쓴 권근은 불씨잡변 20편이라고 하였다.²²⁾ 아마 20편이라고 한 것은 권말의 정도전의 識를 별도의 편으로 계산하고, 전대사실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일컬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도 권근의 서문을 따라 불씨잡변은 20편이라고 소개되기도 한다. 그러나 저자는 처음부터 불씨잡변과 전대사실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씨잡변은 저자가 기술한 대로 불씨잡변 15편과 전대사실 4편 등 모두 19편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겠다. 이 15편의 불씨잡변은 질의문답 형식을 섞어 불교 교리의 그릇됨을 밝히려한 것이고, 4편은 진덕수의 대학연의설을 살펴서 요약한 것이다.

3.2 서명 중의 辯과 辨

정조 15(1791)년에 간행된 삼봉집에 합편된 서명은 佛氏雜辨이다. 그러나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간단행본은 三峯先生佛氏雜辯, 세조 11(1465)년에 간행된 삼봉선생집에 합편된 서명은 佛氏雜辯이다. 이와 같이 정조 15(1791)년 간본은 이전 간본의 서명과는 변의 한자가 다르다. 그런데 삼봉집에 합편된 불씨잡변의 번각본으로 추정되는 판본이 처음 국역본의 대본이 되었고,²³⁾ 이후의 영인본도 삼봉집을 대본으로²⁴⁾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저술은 佛氏雜辨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한자서명에 대해 논급이 없었던 것은 초간단행본이 공개되지 않은데다 삼봉선생집에 합편된 불씨잡변마저 세밀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씨잡변이란 “불가의 잡다한 이론들을 분변한다”²⁵⁾는 뜻으로 쉽게 해석되고 있다.

21) 鄭道傳, “佛氏雜辯識,” “道傳暇日, 著佛氏雜辯十五篇, 前代事實四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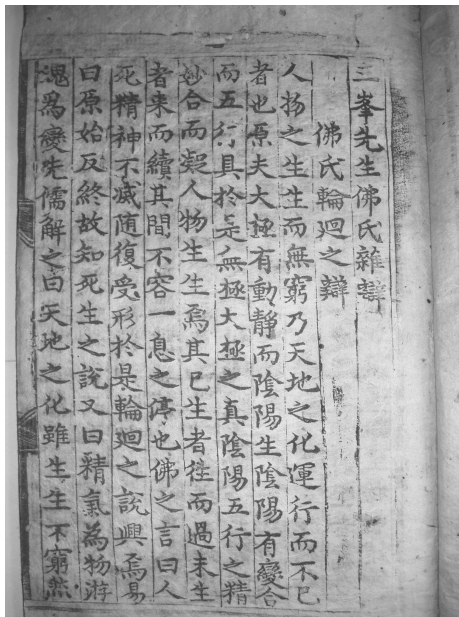
22) 權近, “三峯先生佛氏雜辯序.” “今觀三峯先生佛氏雜辯二十篇”

23) 정도전, 『국역삼봉집 I II』; 고전국역총서 120-121.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24) 鄭道傳, 『三峯集』;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5.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0).

근자에 출판된 번역본(이기훈, 『불씨잡변』,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은 정조 15(1791)년 간행의 삼봉집에 합편된 불씨잡변을 대본으로 하고 있다.

25) 김용옥, 『삼봉정도전의 건국철학』; 조선경국전 불씨잡변의 탐구. (서울: 통나무, 2004). 49.



<사진 1> 佛氏雜辯 초간본의 卷首題面

이렇게 서명 중의 변자가 변형된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규장각학사들이 삼봉집을 교정하고 주석을 붙여 간행할 때 대본으로 사용한 抄本이 辨으로 되어있었고, 초간단행본이나 삼봉선생집에 합편된 불씨잡변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범례를 보면 규장각학사들은 삼봉집이 태조 6(1397)년에 처음 간행되었고, 성종 18(1487)년에 중간된 사실만 언급하고 있다. 더욱이 그들이 참고한 성종 18(1487)년 간본은 攷正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하지 못한 것이었다.²⁶⁾ 둘째, 초간단행본을 간행한 주역인 윤기견이 자신이 지은 발문에서 佛氏雜辯이라 하였고,²⁷⁾ 저자의 증손인 鄭文炯마저 성종 18(1487)년에 삼봉선생집을 追刻한 뒤 다시 쓴 발문에서 불씨잡변의 異書名을 일컬으면서 佛氏辨說

26) 三峯集. 正祖15(1791)年刊. 凡例. “是集, 始刊於洪武丁丑(太祖6,1397), 重刊於成化丁未(成宗18,1487)…抄本, 章段脫缺, 字句訛謬, 刊本, 亦頗不完, 最難攷正”.

27) 尹起猷. “佛氏雜辯跋”, “獨此佛氏雜辯一書”.

과 같이 辯을 사용하였다²⁸⁾는 점이다. 이렇듯 간행 주역들이 한 문자변형은 후일 많은 전사자들이 辯을 사용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명 중의 辯이란 이 책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15편의 辯을 일컫는 것으로 초간단행본과 세조 11(1465)년 간행된 삼봉선생집에 합편된 불씨잡변의 원문에는 분명 辯으로 되어 있다. 또한 초간단행본의 권근의 서문에서도 역시 辯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초기인본에서는 모두 辯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의 의도성을 생각해 보자. 그것은 저자가 이 책의 마지막 변인 關異端之辯에서 孟子가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 好辯한 사실을 인용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곧

“맹자가 好辯으로 楊朱와 墨翟을 막은 까닭은 楊墨의 도를 막지 않으면 성인의 도가 행해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맹자는 양무를 물리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며 (맹자의) 말에 이르기를 능히 양주와 목적을 막으려 말하는 사람은 성인의 무리이다.”²⁹⁾

고 하였다. 이 말은 맹자를 인용한 것인데 원전을 소략해 보면

“(제자인 公都子가 맹자에게) 外人들이 선생님이 호변, 곧 변론하기를 좋아한다는데 감히 왜 그런지를 여쭙습니다.”

하니 맹자는

“내가 변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성인의 도를 지키고 양주와 목적을 막고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다. 능히 양주와 목적을 막으려 말하는 사람은 성인의 무리이다.”³⁰⁾

28) 鄭文炯, “三峯先生集跋.” 成宗18(1487) 刊, “三峯詩文集, 經濟文鑑, 經國典, 佛氏辨說, 心氣理三篇, 我曾祖奉化伯公, 所著也…成化二十三年丁未春三月下澣曾孫…文炯謹跋”. 이에 반해 世祖11(1465)년에 간행된 “三峯先生集跋”에는 “三峯詩文集, 心氣理三篇, 佛氏辯說, 經濟文鑑, 經國典, 我曾祖奉化伯公, 所著也…成化元年乙酉秋七月上澣曾孫…文炯跋”과 같이 “佛氏辯說”로 되어 있다.

29) 鄭道傳, 「三峯先生佛氏雜辯」, “關異端之辯” “孟子之好辯 所以距楊墨也 楊墨之道不距聖人之道不行, 故孟子以關楊墨爲己任. 其言曰, 能言距楊墨者, 亦聖人之徒也”.

30) 「孟子」, “滕文公章句下”

라고 대답한다. 이 글에서 맹자가 호변한 까닭은 바로 양자와 목적의 도를 막아 邪說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성인의 도를 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저자 역시 이 말을 인용한 이유는 자신도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 당위성 때문이었다. 곧

“불씨의 경우는 그 말이 고상하고 미묘하여 性命과 道德 가운데에 출입함으로써 사람을 미혹시킴이 양목보다 더 심하였다. 내가 이단을 물리치는 것으로 나의 임무로 삼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단의 설에 미혹되어 모두 빠져서 사람의 도가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까닭이다.”³¹⁾

그러니까 저자는 關異端之辯에서 맹자가 양목을 물리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 성인의 도를 지켰듯이 자신 역시 불씨를 물리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고 성인의 도를 지키고자 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저자가 사용한 辯은 맹자가 양목을 물리칠 때 행한 好辯을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³²⁾ 더욱이 서문을 지은 권근 역시 저자는 맹자를 계승한 사람이라고 하였으니³³⁾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셈이다.

그런데 일반 개인의 저술과는 달리 맹자와 같은 성현의 저술은 함부로 통용자로 변형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辯을 모두 辨으로 변형한 정조 15(1791)년 간행의 불씨잡변에서도 맹자가 행한 好辯의 辯은 결코 辨으로 변형시키지 않은 데서도³⁴⁾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자가 사용한 변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文體明辯에서는 辯을 문체의 한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문체명변은 명나라 徐師曾이 문체를 101체로 분류하고 부록에서 다시 26체를 추가하여 아주 자세히 분류한 책이다. 일본 京都書林에서 1852년에 간행한 이 책의 권 43에는 문체의

「經書」.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68). 570-576.

31) 鄭道傳. 「三峯先生佛氏雜辯」. “關異端之辯.”, “以予僭庸, 不知力之不足, 而以關異端爲己任者, 非欲上繼六聖一賢之心也. 懼世之人惑於其說, 而淪胥以陷, 人之道至於滅矣”.

32) 권미의 識에서도 가공의 客과의 대화에서 객이 “吾恐子之說雖精, 徒得好辯之譏, 而於彼此之學”와 같이 好辯 이라고 하고 있다

33) 權近. “三峯先生佛氏雜辯序.” “孟子謂承三聖之統, 先生亦繼孟子者也”.

34) 鄭道傳. 「三峯集」. 識. 正祖15(1791)年刊. “吾恐子之說雖精, 徒得好辯之譏”.

하나로 변이 소개되어 있다. 문체로서의 변은 대개 言行之是非와 眞僞를 결단하는 글로 정의되고 있다. 또 某辯이나 辯某같이 변을 앞에 두던 뒤에 두던 다른 뜻은 없으며 당나라 韓愈와 柳宗元 이 문체를 시작하였다고 하였다.³⁵⁾ 문체명변은 서사증이 1570년에 완성하였으나 간행은 불씨잡변이 완성된 지 193년이 지난 1591년에 처음 간행되었다. 그러므로 시기상으로 보아 정도전이 이 책을 보고난 뒤에 불씨잡변을 저술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변은 이미 당나라 때부터 사용된 글의 형식이었다. 그런 만큼 정도전은 얼마든지 이러한 문체를 모방하여 저술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저자는 불씨잡변의 전대사실에서 불교를 배척해야 한다는 한유의 表를 인용하고 있다.³⁶⁾ 불씨잡변에 보이는 15편의 변은 제목 끝에 반드시 辯을 두었고, 내용 또한 한결같이 언행의 시비 진위를 결단하기 위하여 저술된 글로 변의 문체에 해당된다.

위에서 보듯이 불씨잡변에서 수록하고 있는 15편의 辯은 맹자가 행한 好辯을 따라 저자 자신도 호변을 수단으로 불교를 물리치고자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저자가 변이라고 한 것은 맹자가 행한 好辯의 辯인 만큼 후대에 통용자로 변형시킬 대상이 아니었다. 또 변은 후대인에 의해 문체의 하나로 인정되었지만 진작 언행의 시비와 진위를 결단하는 내용을 담은 글의 형식으로 당나라 때부터 사용되던 문체였다. 그러므로 서명과 15편의 변의 한자는 초간단행본과 삼봉선생집에 합편된 서명인 佛氏雜辯과 15편의 辯을 따라 辯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3.3 간행지

처음 불씨잡변은 “유교에 뜻을 둔 사람은 이 책을 통해 그 사악함을 물리치고 이단에 미혹한 사람은 이 책으로 그 의혹을 풀어 이 글을 지어 후세에 전한 뜻이 거의 이루어지길 바라는”³⁷⁾ 윤기건의 열정으로 그가 “襄陽의 수령으로 있을 때인

35) 徐師曾, 『文體明辯』, 3. 影印本(서울: 保景文化社, 1984). 192, “辯, 字書云辯判別也…蓋執其言行之是非眞僞, 而以太義斷之也…至唐韓柳, 乃始作焉…其題或曰, 某辯, 或曰辯某, 則隨作者, 命之, 實非有異義也”.

36) 鄭道傳, 『三峯先生佛氏雜辯』, “事佛甚謹年代尤促.” “刑部侍郎韓愈上表諫曰, 佛者…投諸水火, 永絕禍本”.

세조 2(1456)년에 여가 중에 30여자를 교정한 뒤 간행”³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처음 양양에서 간행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조 중기 책판의 藏置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만력 4(1576)년에 간행된 攷事撮要에는 예천에 佛氏辨說이 있다고 되어있다.³⁹⁾ 불씨변설이란 저자의 증손 정문형이 세조 11(1465)년 처음 삼봉선생집을 간행할 때 발문에서 佛氏辯說이라고 한 것과는 달리 성종 18(1487)년에 추가할 때 사용⁴⁰⁾한 이 책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이 기록을 근거로 한다면 양양에서 판각된 이 책판이 후일 예천으로 移置되었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었다.

그런데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간행주역들의 職銜은 이러한 추측을 不許하고 있다. 곧 윤기전은 관직이 知醴泉郡事이고,⁴¹⁾ 조력자의 한 사람인 李煥도 醴泉儒學敎導⁴²⁾인 것이다. 간행의 주역이 예천의 수령이고, 조력자도 예천사람이니 초간본은 경상도 예천에서 간행된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기전이 발문에서 말한 양양은 예천의 別名 중의 하나인 양양이었다.⁴³⁾ 초간단행본의 이 기록을 통해 그동안 발문에서 말한 간행지역 양양과 예천에 책판이

37) 尹起畎. “佛氏雜辯跋.” “幸有志於吾道者, 因是書而關其邪, 惑於異端者, 因是書而釋其疑, 則先生爲書傳後之志, 庶幾遂.”

38) 尹起畎. “佛氏雜辯跋.” “今守襄陽, 適時無事, 於公暇, 校正謬誤三十餘字, 命工刊梓, 以廣其傳.”

39) 魚叔權. 「攷事撮要」: 萬曆4(1576)年 乙亥字本. 八道程途 慶尙道 醴泉 冊板(條). 鄭亨愚·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錄: 上」. (서울: 保景文化社, 1995) 27, “通鑑 歐蘇手簡, 東人文, 詩傳, 佛氏辨說, 東人詩.”

40) 鄭文炯. “三峯先生集跋.” 世祖 11(1465) 刊, “三峯詩文集, 心氣理三篇, 佛氏辯說, 經濟文鑑, 經國典, 我曾祖奉化伯公, 所著也.”

鄭文炯. “三峯先生集跋.” 成宗 18(1487) 刊, “三峯詩文集, 經濟文鑑, 經國典, 佛氏辯說, 心氣理三篇, 我曾祖奉化伯公, 所著也…成化二十三年丁未春三月下泚曾孫…文炯謹跋.”

41) 李荇 等 撰. 「新增東國輿地勝覽」卷 24 醴泉郡 名宦(條).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Ⅲ」, 中판.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144 上, “本朝…尹起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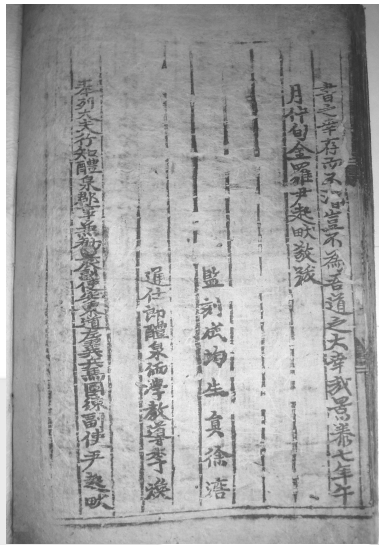
42) 奉列大夫行知醴泉郡事兼勸農副使安東道左翼兵馬團練副使尹起畎. 通仕郎醴泉儒學敎導李煥.

43) 李荇 等 撰,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24 醴泉郡 郡名(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Ⅲ, 中판,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원문p.141 上), “水酒 甫州 基陽 清河 襄陽” 魚叔權, 攷事撮要: 萬曆4(1576)年 乙亥字本, 八道程途 慶尙道 醴泉 別號, “甫州, 基陽, 清河, 襄陽”.

전한다는 고사촬요의 기록 모두가 깔끔히 해결되는 셈이다.

그러니까 윤기견이 주역이 되어 예천에서 간행한 이 책의 책판은 만력 13(1585)年까지는 예천에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다.⁴⁴⁾ 그러나 만력 41(1613)년 이후 간행된 고사촬요⁴⁵⁾에는 이 책판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⁴⁶⁾

대개 28년 사이에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임진왜란이 있었다. 그런데 선조 26(1593)년 5월에는 왜적들이 매일 예천 등의 고을에 불을 질렀다고 하므로 이 때 책판이 燒失되었을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⁴⁷⁾



<사진 2> 불씨잡변 초간본의 卷尾

- 44) 간행연대가 확실한 고사촬요 간인본 중에서는 萬曆13(1585)年 木板本(『韓國의 冊板目錄: 上』, 106)에도 이 사실이 전한다.
- 45) 『攷事撮要』(1613-1734年頃). (韓國의 冊板目錄: 上. (서울: 保景文化社, 1995). 169-276.
- 46) 『古書冊板有處攷』에는 醴泉에 『佛氏辨說』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책은 1939년의 먹지 사본이다. 이 책의 저본은 1700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그 근거가 박약하여 본문에서 대상으로 삼지 않고, 각주에서 이 사실만 밝혀둔다.
- 『韓國의 冊板目錄: 上』, (서울: 保景文化社, 1995). 297.
- 47) 『朝鮮王朝實錄』. 宣祖26年 5月 乙亥(條). “且尙州之賊, 連日焚蕩於龍宮, 醴泉, 安東, 任內, 豐山縣內”.

4. 삼봉집 합편

삼봉집은 대체로 3차례 간행된 것으로 본다. 초간 삼봉집은 태조 6(1397)년 그의 아들 鄭津에 의해 처음 간행되었다. 이 삼봉집은 시문 약간 권을 모아 간행한 것이라 하는데 당시 2권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이때는 정도전이 생존하고 있었으며 아직 불씨잡변은 저술되기 전이었다. 불씨잡변이 단행본으로 간행된 9년 뒤에 마침내 삼봉선생집에 합편되게 된다. 곧 세조 11(1465)년에 정도전의 증손인 정문형은 기존의 시문 2권에다 권3에 陳法, 권4-5에 경제문감 상하, 권6에 조선경국전, 권7에 불씨잡변, 심기리편, 심문, 천답을 더하여 안동에서 삼봉선생집이라는 서명으로 간행하고, 이어 경제문감별집과 더 모은 시문을 성종 18(1487)년에 追刻하였던 것이다. 당시 추각할 때 기존의 삼봉선생집에 후반부만 추각한 것이 아닌 만큼 별도의 판으로 보기도 한다.⁴⁸⁾

이후 정조 15(1791)년에는 정조의 명으로 규장각학사들이 전체 저작을 분류하여 재편하고 교정과 주석을 더하여 다시 삼봉집이라는 서명으로 대구에서 간행하였다. 권1-4에 시문 등, 권5-6에 경제문감 상하, 권7-8에 조선경국전 상하, 권9에 불씨잡변, 권10에 심기리편, 심문, 천답, 권11-12에 경제문감별집 상하, 권13에 진법, 습유, 권14에 부록을 편성하였다. 이 때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감별집이 상하권으로 분권되었고, 습유와 부록이 새로 보충되었다. 그런데 이 판본은 1914년에 缺板을 보각한 뒤 인쇄한 일이 있었다.⁴⁹⁾ 곧 대구 龍仁寺⁵⁰⁾에 장치되고 있던 판본이 판고가 거의 무너지자 廟庭으로 移運의 허락을 받았는데 판본을 조사해 보니 34장이 부족하여 이를 보충하여 續刊하였던 것이다. 이 때 賜諡教旨와 李憲璟이 지은 致祭文⁵¹⁾도 따로 2장으로 엮어 권말에 별도로 첨부하고, 그 연유⁵²⁾도

48) 末松保和, “三峯集編刊考.” 『朝鮮學報』 第1輯(1951). 55-68.

49) 鄭道傳, 「三峯集」. 1914. 成均館大學校 尊經閣藏(D03B-0472).

50) 徐有榘, 「鏤板考」. “三峯集 十四卷”에는 “當寧壬子奉教重刊. 大丘龍淵寺藏”과 같이 임자(정조16,1792)년에 명을 받들어 거듭 새겼다. (판본은) 대구의 용연사에 장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韓國의 冊板目錄下』(서울: 保景文化社, 1995. 1082).

51) “維同治十一年, 歲次壬申(1872), 四月日, 甲寅朔二日乙卯”.

52) 鄭道傳, 「三峯集」. 正祖15(1791)年刊, 1912補刻後刷, “定宗辛亥(1791), 命重刊, 仍藏板,

남겨 두었다.

이렇게 삼봉집의 증보와 재편과정에서 이미 수록되었던 저술과 새로 발견된 저술의 관련성에 따라 편차이동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불씨잡변은 이동의 주 대상이었다. 초간단행본으로 간행된 이후 세조 11(1465)년 삼봉선생집⁵³⁾에 합편될 때는 권7(전7권), 정조 15(1791)년 삼봉집⁵⁴⁾에 합편될 때는 권9(전14권)에 편성되었다. 또 다른 후대의 번각본에는 권5(전14권)에 편성되어⁵⁵⁾ 있기도 하다. 정조 15(1791)년 삼봉집에서는 권두에 불씨잡변이라는 목록제를 두고 이어 목차를 간략기술하고 있는데 비해 국역삼봉집의 대본⁵⁶⁾이 된 번각본은 권두에 목차가 없고 편차도 다르다. 이렇게 다양한 편차구성은 후대 필사본 소장자들에게도 혼란을 주기도 하였다.⁵⁷⁾

于大邱府南龍仁寺者，一百二十二年，壬子(1912)，板閣傾覆翌年請願於道長官承認移運，計其數零三十四張，賜謄教旨，與致祭文，并補續刊，崇奉于廟庭。時甲寅(1914癸十月日也”。

- 53) 鄭道傳, 『三峯先生集』 卷7. 국립중앙도서관장(고7B648-70-1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1465년 간본은 현재 권7(불씨잡변)만 전한다. 일본의 호사(蓬左) 문고에는 7 권 책이 완전하게 전하는데 이 간본의 microfilm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衫浦豊治, 『蓬左文庫典籍鼓録駿河御讀本』. (一宮: 人文科學研究會, 1975). 139-140.
千惠鳳, 『日本蓬左文庫韓國典籍』. (서울: 지식산업사, 2003). 237-240.
名古屋市教育委員會 編, 『蓬左文庫漢籍目錄』. (名古屋市: 同會, 1955). 109.
- 54) 鄭道傳, 『三峯集』. 正祖 15(1791)年刊.
鄭道傳, 『三峯集』: 影印標點韓國文集叢刊: 5.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0).
- 55) 『국역삼봉집 I II』: 고전국역총서120-121.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 56) 『국역삼봉집』(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에 첨부된 영인원문은 당해 책의 일러두기에서 말한 “이 책의 국역대본은 규장각 소장의 태백산본이다”거나 또 해제에서 “정족산본과 태백산 소장본이 가장 완벽하게 전해지고 있고, 이들을 저본으로 한 것”이라는 내용은 영인원문의 내용편차를 볼 때 誤謬로 판단된다.
현재 규장각에는 정조 15년 간본인 정족산본(규726)과 태백산본(규2957)이 전하는데 이 두 본은 동일한 판본이다. 한국문집총간 내의 『삼봉집』과 한국역대문집총서 내의 『삼봉집』(한국역대문집총서: 101-102. 서울: 경인문화사, 1994)도 태백산본(규2957)을 대본으로 영인한 것이다.
『국역삼봉집 I II』: 고전국역총서120-121(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 57) 미국 The Claremont College에 있는 McCormick Korean Collection에 소장된 필사본 『三峯集』(A39.14-39.15, K605, M691, R367)에 합편된 『佛氏雜辨』은 처음에 권7에 편차되었으나 후일 누군가에 의해 권9로, 또다시 권7로 변경된 흔적이 남아 있다. 이러한 편차의 혼란은 『三峯先生集』과 『三峯集』에 합편되어 있는 『佛氏雜辨』의 편차가 각각 권7,

5. 초간단행본과 합편본의 대비

정조 15(1791)년 간행된 삼봉집은 이전에 간행된 삼봉집에 비해 편차가 다소 변형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변형된 것은 편차뿐 아니라 문자도 많았다. 이러한 문자의 변형은 규장각학사들이 교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대본으로 삼은 抄本과 간본이 완전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하겠다.⁵⁸⁾ 실제 당시 간행한 삼봉집의 범례를 보면 학사들은 불씨잡변의 초간단행본이나 세조 11(1465)년 간행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더욱이 성종 18(1487)년 간본마저 완전하지 못했으므로 다소간 문자의 변형은 예견될 수밖에 없었다.

불씨잡변의 경우 이전 세조 11(1465)년 간본에 이미 초간단행본에 비해 변형된 곳도 보인다. 곧 佛氏因果之辯의 권말에 있던 주석이 세조 11(1465)년 삼봉선생집 권7에 합편될 때 원문으로 변형되어 버린 것이다.⁵⁹⁾ 앞에서 살핀 서명의 변자 이외에도 후대간본은 변형된 곳이 제법 있다. 먼저 세 간본의 識·序·跋文의 相異字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뚫는다는 攢과 鑽, 곤륜산의 崑崙과 崑崙, 진료하다는 疹과 診, 마음에 들지 않다는 慊과 歉, 탄식하다는 歎과 嘆, 책갑의 帙과 袞은 서로 통용될 수 있는 자로 볼 수 있겠다. 이 모든 자는 초간단행본과 세조 11년 합편본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정조 15(1791)년 간본이 변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권9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58) 三峯集. 正祖15(1791)年刊. 凡例. “內閣抄本, 乃是全書, 而河浩甫字銘, 陣法等篇, 佚於抄本, 得之後孫, 分類收錄…抄本, 章段脫缺, 字句訛謬, 刊本, 亦頗不完, 最難攷正”.

59) 鄭道傳. 「三峯先生佛氏雜辯」. “佛氏因果之辯”末尾, “聖人設教, 使學者變化氣質, 至於聖賢, 治國者, 轉衰亡而進治安, 此聖人所以廻陰陽之氣, 以致參贊之功者, 佛氏因果之說, 豈能行於其間哉”.

<표 1> 세 간본의 識·序·跋文의 相異字 비교

區分	三峯先生佛氏雜辯 ⁶⁰⁾	佛氏雜辯 ⁶¹⁾	佛氏雜辯 ⁶²⁾	同異性
識	佛氏雜辯	左同	佛氏雜辯	○○△
	辯佛氏	左同	辯佛氏	○○△
			按無情…如來也	新註
	諸辯之說	左同	諸辯之說	○○△
	輪迴等辯	左同	輪迴等辯	○○△
	此言堅固	左同	此甚堅固	○○△
	兩木相攢	左同	兩木相攢	○○△
	炎昆崙	左同	炎崑崙	○○△
	可勝嘆哉	左同	可勝歎哉	○○△
	疹其臟脉	左同	診其臟脉	○○△
	佛氏雜辯	佛氏雜辯	左同	△○○
	醫卜之辯	醫卜之辯	左同	△○○
	其餘論辯	其餘論辯	左同	△○○
	諄諄力辯	諄諄力辯	左同	△○○
序	猶慊	左同	猶歎	○○△
	儒佛之辯	儒佛之辯	左同	△○○
	嘆曰	嘆曰	歎曰	○○△
	力辯	力辯	左同	△○○
	雖辯其非	雖辯其非	左同	△○○
	佛氏雜辯	左同	左同	○○○
	亂帙之中	左同	亂裘之中	○○△
			按金羅…別名	新註

그런데 辯의 경우는 특이해 보인다. 곧 초간단행본에는 지, 서 모두 辯을 사용하였고, 간행의 주역인 윤기전 자신의 쓴 발문에서만 辨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세조 11년 합편본에는 정도전의 지는 모두 초간단행본을 따라 辯으로 했으나 권근이 서문에서 쓴 것은 모두 辨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정조 15년의 합편본에서는 지, 서문 할 것 없이 모두 辨으로 변형되었다. 정조 15년 합편본의 경우는 당시 대본인 전사본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으나 세조 11년 합편본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아마 초간단행본의 서문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곧 당시 간행자 정문형의 증조인 정도전이 사용한 辯은 그대로 두면서 권근이 사용한 辯만 모두 辨으로

60) 世祖2(1456)年 初刊單行本.

61) 世祖11(1465)年 合編本.

62) 正祖15(1791)年 合編本.

변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윤기전은 초간단행본의 원문과 서문에서 사용된 辯을 그가 지은 발문에서는 辨으로 적어두었다. 이것이 막연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통용될 수 있는 자이어서 사용한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후대간본이라도 모두 辯을 辨으로 변형한 것은 아니다. 곧 앞 장에서 살폈듯이 저자가 識에서 말한 맹자의 好辯之譏는 후대간본 모두 辯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불씨잡변 원문 중에서 통용이 가능한 자를 제외한 相異字를 살펴니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든 문자는 통용이 곤란하거나 誤判讀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문자를 대상으로 살핀 것이다. <표 2>에서 보듯이 초간단행본과 세조 11년 삼봉선생집에 합편된 불씨잡변은 전 12 개처 중에서 4 개처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간단행본이 간행된 후 불과 9년 뒤에 판각된 만큼 초간단행본의 원문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조 11(1465)년에 합편된 불씨잡변의 鳥喙, 其立言과 爲敎는 내용으로 보면 초간단행본의 鳥喙, 眞立言과 僞敎를 잘못 관독하여 오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삼봉선생집을 간행할 때 교감을 거치긴 했지만⁶³⁾ 鳥喙, 眞立言, 僞敎 등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사실로 본다면 당시 교감은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通用字를 제외한 세 간본의 相異字

區分	三峯先生佛氏雜辯	佛氏雜辯	佛氏雜辯	同異性
佛氏因果之辯	鳥喙	鳥喙	鳥喙	○△○
佛氏心性之辯	人以佛與法	左同	又以佛與法	○○△
佛氏慈悲之辯	眞立言	其立言	左同	△○○
上同	枯渴	左同	枯渴	○○△
上同	愛惜	愛惜	左同	△○○
佛氏地獄之辯	僞敎	爲敎	僞敎	○△○
佛氏禪敎之辯	賤陋	左同	淺陋	○○△
佛氏禪敎之辯	荊藁	左同	榛棘	○○△
儒釋同異之辯	持達	左同	特達	○○△
事佛得禍	待善	左同	行善	○○△
事佛得禍	以來	左同	以後	○○△

63) 鄭道傳, 「三峯先生集」 卷末. 世祖11年刊本(蓬左文庫藏), “校勘, 朝散大夫尙州儒學教授 官 趙瑞廷, 宣敎郎晉州儒學教授官 趙昱”.

이와는 달리 정조 15(1791)년에 합편된 불씨잡변은 여러 곳에서 이전 간본과 차이를 보인다. 곧 세조 11년 간본의 鳥喙와 爲教 등을 鳥喙과 僞教로 바로 잡는 등 정밀한 교감의 흔적이 있다. 물론 삼봉집을 간행할 때 사용한 책의 底本이 성종 18(1487)년에 간행된 불완전한 삼봉선생집과 抄本이었던 까닭에 그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상통하는 경우 오류는 잡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조 15년 삼봉집에 합편된 불씨잡변은 이전의 판본에 비해 문자의 변형이 많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앞에서 논급한 辯, 그리고 전 15변 중에서 제5번째 변의 題名에 나오는 迹⁶⁴⁾이다. 이 두 자는 정조 15(1791)년 간본에서는 辨과 跡으로 전체에 걸쳐 변형되어 있다. 이외에도 攢木과 鑽木, 疆弱과 強弱, 不鈞과 不均, 胗人과 診人, 唼之와 餞之, 蹄齧과 踴齧, 舍父와 捨父, 廻紇과 回紇 등은 모두 의미상으로는 통용될 수 있으나 변형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인은 저본이 된 抄本에 이미 변형되어 있었거나 당시 교정을 맡은 규장각학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저자인 정도전이 취향으로 사용한 문자인데 후대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전사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舍와 捨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다. 곧 초간단행본 중의 “始舍父而奔敵國” 중의 舍는 정조 15(1791)년 간본에서는 捨로 변형되었다.⁶⁵⁾ 아마 누군가가 버린다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원저자인 정도전은 버린다는 의미로 다른 곳에서 이미 舍를 사용하고 있었다. 곧 이 책 제 17번째의 前代事實의 제목은 “천도를 버리고 불교를 말한다”는 의미로 쓴 “舍天道而談佛果”⁶⁶⁾이다. 이렇게 원저자가 버린다는 의미로 捨가 아닌 舍를 사용한 만큼 본문에서도 舍를 사용한 것은 그의 취향인 것이다. 또 초간단행본이 간행된 이후 235년이나 지난 시기의 일인 만큼 당대 사용되던 문자의 의미나 유행이 초간 당시와는 차이가 있을 수

64) 鄭道傳, 「三峯先生佛氏雜辯」, “佛氏心迹之辯.”

65) 鄭道傳, 「三峯集」, 事佛得禍. 正祖15(1791)年刊. “始捨父而奔敵國, 終引賊以覆宗祔”.

66) 正祖 15年 刊本에서도 17번째의 前代事實의 제목은 “舍天道而談佛果”로 두고, 捨”로 변형하지 않았다.

있다. 그러므로 원문 역시 초간단행본이 저자의 문자사용의 취향을 보여주는 善本이 틀림없음으로 초간단행본의 원문을 定本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6. 결 언

불씨잡변은 정도전이 부패한 麗末 불교의 사회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신왕조에 적합한 통치이념을 위해 불교를 비판한 저술이다. 처음 저술된 지 58년이 지난 세조 2(1456)년 윤기전에 의해 예천에서 처음 단독으로 간행되었다. 이 초간단행본은 미국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 동아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책을 통해 여러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그 사실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정조 15(1791)년에 간행된 전 14 권의 삼봉집의 권9에는 佛氏雜辯이 합편되어 있다. 현재 이 간본이 국내에서 영인되어 보급되었고, 또 이 간본의 번각본으로 판단되는 판본이 국역본의 대본이 되었기 때문에 한자서명은 佛氏雜辯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세조 2(1456)년에 간행된 초간단행본의 서명은 三峯先生佛氏雜辯이고, 세조 11(1465)년 삼봉선생집에 합편된 서명 역시 佛氏雜辯이다. 불씨잡변에서 수록하고 있는 15편의 辯은 맹자가 행한 好辯을 따라 저자자신도 호변을 수단으로 불교를 물리치고자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더욱이 서문을 지은 권근 역시 저자는 맹자를 계승한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셈이다. 아울러 辯은 言行之 是非와 眞僞를 결단하는 내용을 담은 글의 형식으로 당나라 때부터 사용되던 문체였다. 그러므로 이 책의 한자서명은 초간단행본이나 세조 11(1465)년에 합편된 서명과 같은 佛氏雜辯으로 바로 잡아야 하겠다.

둘째, 종래 불씨잡변 초간단행본은 윤기전의 발문을 따라 세조 2(1456)년 양양에서 간행된 것으로만 알려져 왔다. 그런데 초간단행본은 발문 뒤에 윤기전과 조력자의 관직이 남아있다. 곧 윤기전의 관직은 知醴泉郡事였고, 조력자인 이환

도 醴泉儒學教導였다. 그러니까 초간단행본은 경상도 예천에서 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기건이 발문에서 말한 양양은 예천의 별명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셋째, 초간단행본의 책판은 언제 어떤 과정으로 재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만력 13(1585)년까지 간행지인 예천에 보존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攷事撮要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만력 41(1613)년 이후 간행된 고사촬요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대개 28년 사이에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임진왜란이 있었다. 그런데 선조 26(1593)년 5월에는 왜적들이 매일 예천 등의 고을에 불을 질렀다고 하므로 이 때 책판이 燒失되었을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넷째, 불씨잡변은 단행본으로 간행된 9년 뒤인 세조 11(1465)년에 정도전의 증손인 정문형에 의해 삼봉선생집 전 7권중에 권 7에 합편되었고, 정조 15(1791)년에는 규장각학사들이 전체 저작을 분류하여 재편하고 교정과 주석을 더하여 간행한 삼봉집에서는 전 14권 중에 권 9에 합편되었다. 또 다른 번각본의 경우에는 전 14권 중 권 5에 편성되는 등 卷次의 이동이 많아 혼란스럽다. 오히려 이러한 편차구성은 국내외에 전하는 전사본의 경우 어느 시기의 간본을 저본으로 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다섯째, 초간단행본과 세조 11년에 간행된 삼봉선생집에 합편된 불씨잡변에서 사용한 辯과 迹은 정조 15(1791)년 삼봉집에 합편된 불씨잡변에서는 거의 모두 辨과 跡으로 변형되어 있다. 세조 11년에 간행된 삼봉선생집에 합편된 불씨잡변은 교감을 거치긴 했지만 鳥喙, 眞立言, 僞教 등을 鳥喙, 其立言, 爲教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아마 당시 교감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규장각학사들이 교정하고 주석하여 정조 15년에 간행한 삼봉집에 합편된 불씨잡변에서는 세조 11년 간본에서 誤謬한 鳥喙와 爲教 등을 오히려 鳥喙과 僞教로 바로 잡는 등 정밀한 교감의 흔적이 보인다.

<참고문헌>

원전 및 자료

- 鄭道傳, 「三峯先生佛氏雜辯」, 木板本, [醴泉]: [尹起畎], 世祖 2(1456). 「三峯先生集」, 世祖 11(1465). 日本蓬左文庫藏. 國立中央圖書館 microfilm 藏
「佛氏雜辯」; 三峯先生集 卷7. 世祖 11(1465). 國立中央圖書館藏 「三峯集」, 正祖 15(1791). 「三峯集」, 1914. 「三峯集」, 寫本, The Claremont College Library McCormick Korean Collection 藏 「三峯集」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5.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0.
- 鄭文炯, 「三峯先生集跋」, 成宗 18(1487). 國立中央圖書館藏.
- 「韓國漢文學論文選集13」; 三峯 鄭道傳 과 陽村 權近. 교양: 불함문화사, 2002.
- 「한국의 사상대전집6」; 정도전. 서울: 동화출판공사, 1972.
- 「經書」. 서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68.
- 「蓬左文庫漢籍目錄」, 名古屋市教育委員會 編. 名古屋市: 同會, 昭和 30(1955).
- 「朝鮮王朝實錄」, 太祖7年 8月 己巳(條).
- 「朝鮮王朝實錄」, 宣祖26年 5月 乙亥(條).
- 「韓國의 冊板目錄」, 鄭亨愚·尹炳泰 編. 서울: 保景文化社, 1995.

단행본

- 權近, 「국역양촌집: 고전국역총서175」,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2.
- 김용옥, 「삼봉정도전의 건국철학」; 조선경국전 불씨잡변의 탐구. 서울: 통나무, 2004.
- 이기훈, 「불씨잡변」,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 李鍾燦, 「韓國漢詩大觀13」, 서울: 이회문화사, 2002.
- 李荇 等,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Ⅲ」, 중판.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 鄭道傳, 「三峯集」; 한국역대문집총서101-102. 영인본. 서울: 경인문화사, 1994. 「국

- 역삼봉집 I II』:고전국역총서120-121.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 정성식. 「포은과 삼봉의 철학사상」. 서울: 심산문화, 2003.
- 조기영. 「삼봉과 리더십」. 서울: 이치, 2004.
- 千惠鳳. 「日本蓬左文庫韓國典籍」. 서울: 지식산업사, 2003.
- 한영우.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서울: 지식산업사, 1999.
-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개정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杉浦豊治. 「蓬左文庫典籍 叢錄:駿河御讓本」. 一宮: 人文科學研究會, 1975.
- 徐師曾. 「文體明辯」. 影印本. 서울: 保景文化社, 1984.

論文

- 琴章泰. “三峯의 關佛論.” 『三峯鄭道傳研究』. 서울: 삼봉선생기념사업회, 1982. 185-214.
- 金海榮. “鄭道傳의 排佛思想” 『淸溪史學』 제1집(1984). 33-62.
- 宋昌漢. “鄭道傳의 斥佛論에 대하여: 佛氏雜辨을 중심으로.” 『大丘史學』 第15-16合集(1978). 225-246.
- 李丙燾. “三峯의 儒佛觀.” “三峯의 與關異端.” 『三峯鄭道傳研究』. 서울: 삼봉선생기념사업회, 1992.
- 李相佰. “三峰人物考1.” 『震檀學報』 第23卷(1935). 239-283.
- 李相佰. “三峰人物考(完).” 『震檀學報』 第23卷(1936). 495-529.
- 이영춘. “정도전의 배불론과 그 성격.” 『한국사상과 문화』 창간호(1998). 167-185.
- 李炫熙. “三峯集.” 『國會圖書館報』 제5권 1호(1968.1). 46-53.
- 이흥순. “정도전의 배불사상.” 『애산학보』 12집(1992). 119-141.
- 한자경. “정도전의 불교비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불교학연구』 제6호(2003). 71-104.
- 末松保和. “三峯集編刊考.” 『朝鮮學報』 第1輯(1951). 55-68.